

한국전통주택 난간의 의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orating Design of the Handrail in the Korean Traditional Dwelling Houses

김 태 연*
Kim, Tae-Yeon

윤 재 웅**
Yoon, Jae-Woong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on the decorating design and method of handrail of the old residential houses. The method of studying is proceeding to select and survey the houses identified as the cultural properties that have the value of heritage in the handrail design.

The conclusion as following ; Handrail play not only functional part but embellished part. The wood Handrails can be classified in two styles ; One "pyung"(平) style, another "keja"(鷄子) style. The former is composed of straight lines which looks simpl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contains the elaborated decoration which gives solid beauty.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 of the handrail in Korean structure is found in the changing the sense of the lineal and curve beauty into the symmetrical line, and is fund in the variety of the high qualified details. Over its esthetic senses, the residents' hope and need for the goodness such as good omen, rich longevity and getting boys and formed as passive symbolic world, and the auspicious signed letters and the geometric and natural forms of plants, are expressed upon the decorating design of handrail.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한국전통주택은 은신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이념을 실천하고 각종 의식을 수행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주택공간들에는 신성성에 바탕을 둔 질서화의 도식을 통하여 건축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공간을 구조화하여 여러 가지 삶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한국 전통주택에서 의장은 건축을 위한 구조적 의장과 기능상 필요 불가결하게 나타난 의장, 순수한 장식으로서의 욕구에 의해서 채택된 문양과 장식 등이 있다. 문양과 장식은 우리민족의 사유체계를 가장 순수하고 명료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며 인간의 삶과 자연과의 관계를 일상생활 속에 구체화시킨 것으로 우리 민족의 조형적 특성과 독창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문양과 장식은 전통주택의 담장, 굴뚝, 기와, 창호, 난간, 가구, 생활기물 등의 의장적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난간은 전통주택의 특징적 형태로서 누마루, 상층마루 등의 높은 구조의 갓 들레를 막아낸 것으로 처음에는 안전을 위한 기능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점차 장식적인 의장요소를 가미시켜 발전되었다. 우리민족은 집을 지을 때 가족의 안녕과 가세의 번영, 풍요 등을 기원하는 건축의례를 행하여 왔으며, 부적이나 여러 의미의 문양 조각을 만들어 주거의 여러 공간을 장식해 왔다. 난간의 문양조각도 이와 같이 독특한 상징성을 내포한 의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시 주거공간에는 기능성을 우선한 획일적이고 성격 없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보편화되고, 거주자들의 요구와 상징적 의미가 외면당하고 있으며 우리 주거문화의 전통적 맥락과 가치가 점차 상실되어

* 정회원, 대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 정회원, 대구효성가톨릭대 생활환경학과 교수

가고 있어 전통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전통주택 난간에 표현된 장식, 문양의 유형을 조사 분석하고, 이러한 문양들이 갖는 상징성을 파악하여 현대 주거공간의 외관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한국 전통주택 중 난간에 의장적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주택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난간의 발생과 구조, 장식, 문양의 종류와 의미 등을 파악하여 연구의 관점을 설정하고, 「보물(1985)」 「중요민속자료집(1985)」 「한국 전통건축(1997)」 등의 문헌에 수록된 250여 호를 대상으로 난간에 문양·장식이 있는 60호를 추출하여 문양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문헌자료에서 분류된 각 유형별 대표적 사례들을 실측 조사하여 분석 및 해석을 위한 보완 자료로 활용하였다.

II. 문헌고찰

1. 난간의 발생 및 구조

한국 전통건축에서 난간이 언제 어떤 형태로 발달되어 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고려려 장군총 상부의 난간, 안압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시대의 난간 살 등으로 미루어 삼국시대에 이미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불국사 백운교·청운교의 난간과 실상사 백장암의 탑에 설치된 난간으로 미루어 난간의 형태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석탑인 경천사지 십층탑을 보면 난간의 엄지기둥 상부에 연잎 모양의 장식이 있는데 이러한 난간형식은 조선시대에 와서 더욱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조선시대 사랑채의 누마루는 대청과는 달리 삼면이 개방된 형태로 바닥을 기둥 밖으로 연장시켜 바닥 면적을 넓히고 주위 경관을 감상하기 좋게 하였는데 그 가장자리에는 난간을

설치하였다.¹⁾

전통주택의 난간은 대부분 목조난간으로, 그 종류는 평난간(平欄干)과 계자난간(鷄子欄干)으로 나누어진다. 평난간은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위의 중방에 수직으로 엄지기둥과 난간동자를 세우고 난간동자 위에 띠장과 하엽을 둔 후 두겹대를 수평으로 설치하였다. 계자난간은 계자각(鷄子脚)이라 부르는 부재를 중방에 세우고, 이 계자각 끝에 하엽을 직접 붙인 후 다시 이 하엽 위에 난간 두겹대를 수평으로 보낸다.²⁾ 주택 난간에서 엄지기둥의 장식은 거의 없고, 궁창부의 안상(眼象)이 여러 가지 다양한 구름문양과 여의(如意) 문양으로 표현되었으며, 두겹대를 받치고 있는 받침부는 하엽이나 호리병 모양, 삼각형의 문양을 목재자체에 직접 조각하여 사용하였다. 하엽의 형태도 난간의 크기나 계자각의 분위기에 맞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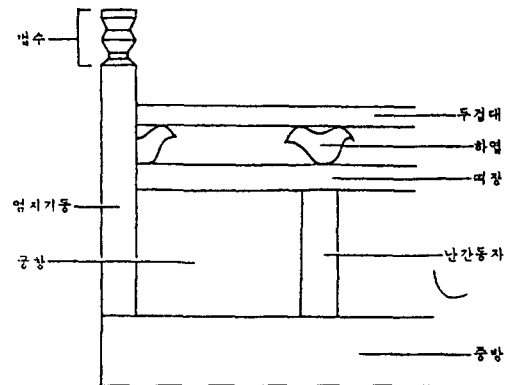


그림 1. 평난간의 구조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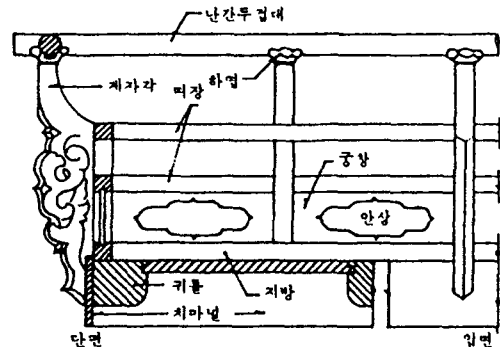


그림 2. 계자난간의 구조⁴⁾

조각된 모양이 다양하다. 또한 난간 동자기둥 사이에 가는 나무 살을 짜서 장식한 난간을 교란(交欄)이라 하는데, 살의 모양에 따라 亞字교란, 卍字교란 등의 기하학적 모양이 있다.

2. 난간의 장식문양

① 자연문

자연문 소재는 산, 물, 구름, 해 달 등이며, 염원과 무궁을 상징한다. 구름문양은 다복(多福), 다수(多壽), 다손(多孫)의 상징적인 요소로 이용되었다. 구름문양의 유형에는 회화적인 표현과 도식적인 표현이 있는데 삼국시대의 고분벽화나 칠기에는 사실적으로 그린 회화적인 구름과 함께 당초문 형태의 S자 곡선으로 표현된 도식적인 구름문양이 있다. 또 신라시대에는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화려한 화문(花紋)형식의 보운문(寶雲紋)이 사용되었다.

② 식물문

식물문은 화합, 부귀 다남, 장생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문양에 많이 이용된 식물은 당초, 연꽃, 모란, 포도, 소나무, 대나무, 매화, 난초 등이었다. 연화문은 부귀를 상징하는데, 진흙 속에서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연꽃의 상태에서 군자의 기품을 느껴 선비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연꽃의 잎을 하엽이라고 하는데, 연잎과 덩굴이 어우러져 있는 모양은 장생과 생명, 그리고 자비의 표현이며, 의연한 군자의 기상이라 믿어왔다.

호로문(葫蘆紋)에서 호로는 호리병박을 말하며 표단(瓢箪)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속신앙에 두창신이 표주박을 보면 달아난다고 하여 호로병은 제마(制魔), 신약(神藥) 또는 선약(仙藥)의 상징물로 되었다. 호로박 속에는 많은 씨앗이 들어 있어 자손이 많음을 상징하는 길상적인 사물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호로박은 다손과 부귀를 뜻한다.

③ 기하학적문양과 길상문

기하학적 문양들은 인류가 창안한 가장 오랜 장식 의장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그 기원은 원시 사회에 있어서 주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교란에 표현된 卍字문이나 亞字문은

이러한 문양의 시원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아자문은 부귀와 장수를 나타내는 도형으로 원래는 궁궐이나 관아, 사당, 가묘 등에만 사용될 수 있었고 완자문은 부귀와 장수를 나타내며 영원하다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길상이 한데 모여있음을 나타낸다.⁵⁾ 또한 완자문은 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만사여의(萬事如意), 또는 만년여의(萬年如意)의 뜻이 있다.

길상문에는 십장생문, 팔괴문, 태극문, 여의두문(如意頭紋), 안상문, 길상어문등이 있다. 여의두문은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양으로, 서운(瑞雲)이나 영지(靈芝) 등 상징적인 사물에서 그 모양을 본떴으며 길상과 축송(祝頌)에 쓰이는 불전에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의두문은 구름문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의두문의 머리 형식은 보상화문(寶相華紋)에서 본 뜬것도 있다.⁶⁾

III. 자료분석

1. 사례조사

문헌에서 추출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위하여 실측 조사한 각 유형별 대표적 사례를 정리한다.

한국전통주택의 난간은 대개 사랑채, 안채, 별채, 루나 정자 등에서 볼 수 있다. 조사대상 가옥의 난간은 별당에만 설치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였으나 대개 사랑채와 안채의 두 곳 모두 또는 어느 한 곳에만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두 공간 중 사랑채에 난간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안채보다 사랑채의 난간모양이 더 화려한 장식적 구성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난간의 종류, 궁창부와 두겹대 받침부의 의장수법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기술한다.

(1) 평난간

평난간은 궁창부의 의장수법에 따라 머름형, 교란, 안상형,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머름형

조사대상에서 머름궁창 난간은 궁집, 화성 정용채 가옥, 여주 김영구 가옥 등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들 가옥은 모두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

• 궁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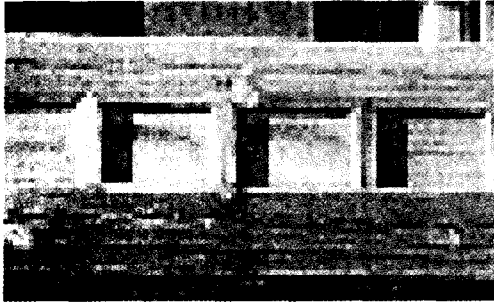


사진 1. 궁집 난간

이 집은 북한 강변의 산록에 자리잡은 옹주의 시택이었다. 평면구성은 口字형을 기본으로 사랑채의 누마루가 덧붙었고, 안마당에서 안채와 사랑채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사랑채와 안채는 작은 마루방을 통해 연결된다. 사랑채의 누마루에는 난간이 있는데 난간형태는 머름대를 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머름궁창 난간이다. (사진 1)

② 교란

교란은 亞字형과 卍字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亞字 교란을 사용한 가옥은 월성 손동만가옥, 하회 북촌대, 창양동 후송당 등이 있고, 완자 교란은 서산 최씨가옥, 예천 권씨 종택, 영암 현종식가옥, 강릉 선교장, 이향정, 묘동 박황가옥 등에서 볼 수 있다.

• 하회 북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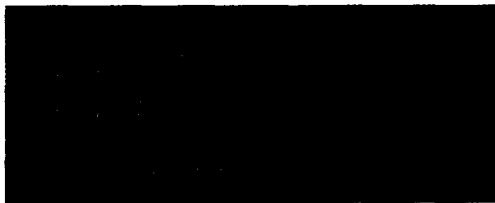


사진 2. 하회북촌대 난간

하회마을 북촌의 중심에 위치한 이 집은 유난히 높고 긴 담으로 둘러 싸인 넓은 터에 행랑채, 사랑채, 안채, 별당채를 갖춘 규모가 큰집이다. 난간의 형태는 평난간으로 궁창부를 亞字형의 교란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진 2)

• 보은 선병국 가옥

이 집은 안채와 사랑채, 사당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채는 H字형 평면으로 가운데는 커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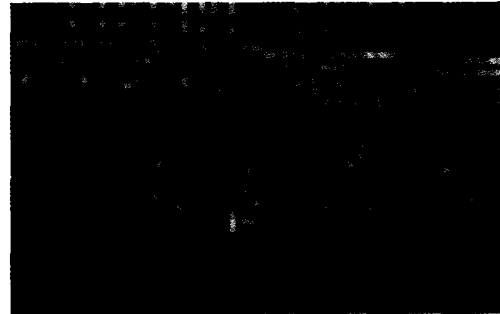


사진 3. 선병국 가옥 안채난간

대청을 두고 양쪽으로 방을 배치하였으며, 안채는 사랑채 축과 직각으로 꺾여 서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이 집은 안채와 사랑채 난간의 문양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안채 난간보다 사랑채 난간이 더 장식적이고 화려함을 알 수 있다. 난간의 종류는 평난간의 교란이며 두집대 받침은 하엽형이 아닌 호로병형이다. (사진 3)

③ 안상형

함양 정병호 가옥, 목정리 고가, 태고정, 하회 겸암정사와 지촌종택 등에서 볼 수 있다.

• 함양 정병호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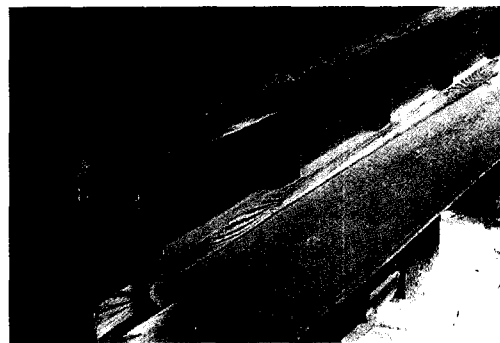


사진 4. 함양 정병호가옥 난간

경남지방의 대표적인 상류주택으로 넓은 터에 솟을대문, 행랑채, 안사랑채, 중문간채, 안채, 아래채, 광채, 사당 등 여러 채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안채 난간은 평난간의 형태로 궁창부는 운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4)

④ 기타

창양동 후송당의 경우 난간이 증층으로 되어 있

는 평난간으로 윗 층은 교란으로, 아랫 층은 궁창 판에 조각을 하였고, 가평리 계서당도 증층의 평난간으로 아무런 문양 없이 윗 층은 비어져 있고 아래층은 궁판으로 막아놓은 형태를 하고 있다. (사진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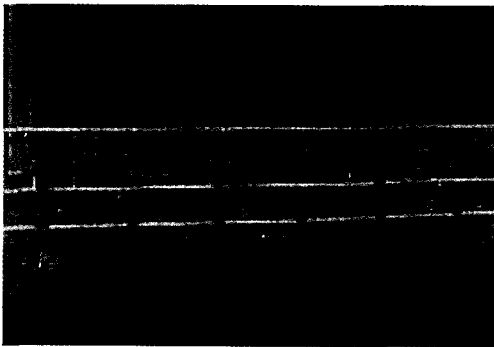


사진 5. 창양동 후송당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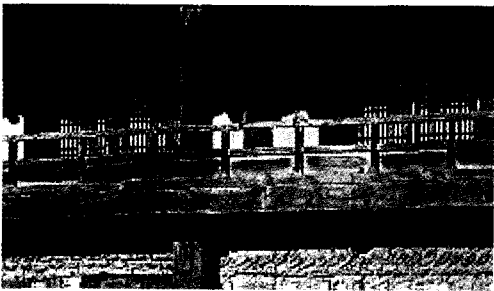


사진 6. 가평리 계서당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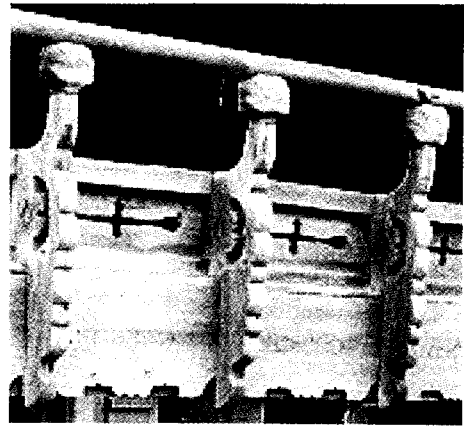


사진 7. 무침당 난간



사진 8. 구례 운조루 난간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사진 7)

• 구례 운조루

주택의 전체구성은 대문간채와 사랑채, 안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랑채는 안채와 떨어져 주택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一字形으로 고방과 행랑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채는 안채의 왼쪽에 커다란 대청을 끼고 안채와 연이어져 있으며 亞字形을 이룬다. 꼭간채로 진입되는 사당이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사랑채의 내루(內樓)에 계자난간이 있다. 이 난간에는 궁창부에 안상 두 개씩을 나란히 뚫어 놓은 것이 돋보이는데, 문양은 운기문의 단순화된 형태인 듯 싶다. (사진 8)

② 궁판널형

계자난간으로 궁창부에 아무런 문양 없이 판채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서 조사대상주택의 계자난간 약 30%가 이런 유형이다.

• 하회 충효당

2) 계자난간

계자난간은 궁창부의 문양에 따라 안상형, 문양 없이 궁판만 끼워넣은 궁판널형으로 구분하였다.

① 안상형

양동마을 심수정, 하회 무침당, 구례 운조루, 안동풍산 김씨종택등 여러 가옥 등에서 보여진다.

• 무침당

하회마을 북촌의 중앙에 자리잡은 무침당은 별당채인 무침당과 본채, 그리고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는 ㄷ字 평면의 행랑채와 ㄷ字形의 안채가 인접되어 전체적으로 ㄱ字 배치를 이룬다. 무침당은 계자난간으로 두겹대 받침부분에 하엽문이 새겨져 있고 궁창부에도 꽃을 옆으로 누인 듯한 모양으로 되어있으며 계자각도 조각을 해서



사진 9. 하회 충효당 난간

충효당은 一자형의 행랑채, 口자형의 안채에 一자형의 사랑채, 사당으로 구성된 남촌을 대표하는 가옥이다. 난간의 형태는 계자난간으로 궁창부에는 안상이 없고 두겹대 받침도 없다. 다만 계자각의 모양이 아름답다.(사진 9)

2. 난간의 의장성

난간의 종류는 평난간 43%, 계자난간이 57%였는데 평난간은 주로 충청, 경기, 강원도 지방에, 계자난간은 경상도 지방에서 나타났으며, 전라도 지방에는 평난간과 계자난간의 분포가 비슷하였다. (그림 3)

또한 난간은 각 부재들이 여러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의장적 수법이 다양하게 구사되는 곳이 궁창부와 두겹대 받침부이다. 궁창부 의장은 계자난간의 경우 안상(眼象)을 새긴 판으로 끼워 넣은 것이 67%, 비워두거나 장식 없이 궁판널을 끼워 넣은 것이 33%였으며, 평난간에서는 머름형 5%, 亞자·권자 등의 살대를 짜 넣은 교란형 20%, 안상형 50%, 기타 5%로 나타났는데 교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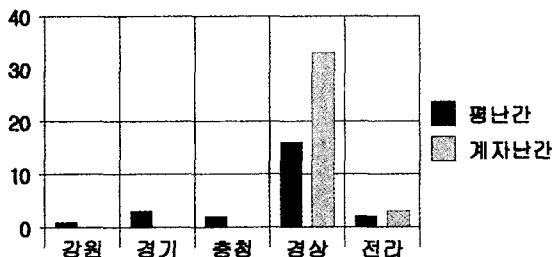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난간 종류

은 지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머름형은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나타났다. (표 1)

평난간의 궁창부를 머름 형식으로 장식한 경우는 대개 난간 위에 분합문이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기후적, 공간 구성적 영향이 아닌가 추측된다. 두겹대 받침부 의장을 난간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평난간에는 받침 없는 것이 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동형(3%), 호로병형(2%), 하엽형(2%) 순이었으며, 계자난간은 하엽형 23%, 받침 없는 것 37%로 나타났다.

이를 두겹대 받침부의 문양을 중심으로 보면 받침 없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하엽형, 기동형, 호로병형 순이었다. (표 2)

2. 난간문양의 상징성

1) 궁창부에 표현된 문양의 상징성

난간의 궁창부 안상은 '風穴'이라 하여 말그대로 바람구멍이 뚫려 있다. 이 안상은 구름무늬 등의 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답답해 보이기 쉬운 난간에 숨통을 열어줌으로써 개방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1) 여의두문(如意頭紋)과 운기문(雲氣紋)

여의두문과 운기문은 함양 정병호 가옥, 함양 허삼들 가옥, 영양 서석지, 양진당 등 여러 가옥에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여의두문과 운기문을 식별

표 1. 궁창부 구성

종류	평난간					소계	계자난간		소계	총계
	머름형	교란		안상형	기타		안상형	궁판널형		
		亞字	卍字							
사례수	3(5)	4(7)	8(13)	6(10)	3(5)	24(40)	24(40)	12(20)	36(60)	60(100)

표 2. 두겹대 받침부 문양

종류	평난간				소계	계자난간		소계	총계
	기동형(삼각형)	호로병형	하엽형	받침없음		하엽형	받침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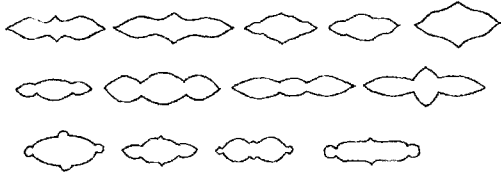


그림 4. 공창부에 나타난 여의두문과 운기문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안상의 운기문에서 여의형의 특징이 표현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구름의 모양이 시대가 흐르면서 도식적으로 변형되어 독자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난간의 안상형도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볼 수 있는 안상형은 조선시대 난간을 제작하는 목수들의 심미안에 의한 구름문양의 다양한 변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운기문은 다복(多福), 다수(多壽), 다손(多孫)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의두문은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그림 4)

(2) 亞字·卍字 문양

살대로 짜 넣은 것을 교란이라고 하는데 이 교란의 문양 중에서 亞字와 卍字를 볼 수 있었다. 이런 기하학적 문양들은 인류가 창안한 가장 오랜 장식 의장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창살문이나 다른 장식문으로도 많이 사용된 문양중 하나이다.

亞字 교란을 사용한 가옥은 월성 손동만 가옥, 북촌대, 창양동 후송당 등이 있고 卍字 교란은 서산 상옥 최씨가옥, 예천 권씨종택, 영암 현종식 가옥, 강릉 선교장, 이향정, 묘동 박황가옥 등에서 보여졌다.

亞字문은 부귀와 장수를 나타내는 문양이며 卍字문은 길상의 표시로 역시 부귀와 장수의 의미가 있고, 또한 영원하다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의미도 지닌다. 또한 완(卍)자문은 만(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만사여의(萬事如意), 또는 만년여의(萬年如意)의 뜻을 가지고 있다.

2) 두겹대 받침부에 표현된 문양의 상징성

(1) 하엽문

본 연구에서는 함양 허삼들가옥, 수운정, 심수정

등 14가옥의 두겹대 받침부에서 하엽 문양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매우 다양한 형태의 하엽문이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엽은 연꽃의 잎을 말하는데 연꽃은 꽃 중에 군자라 하였으니 그 꽃이 진흙 속에서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한다. 정결한 연꽃에서 군자의 기품을 느껴 선비들이 즐겨 사용한 문양중 하나이고 그래서 사랑채 난간의 문양으로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연잎과 덩굴이 어우러져 있는 모양은 장생과 생명, 그리고 자비의 표현이며, 의연한 군자의 기상이라 믿어왔다. 특히 전통주택처럼 목조건축물의 난간에 하엽문을 많이 쓴 것은 연꽃이 물 속에서 자라 꽃을 피우는 식물이므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목조건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도 한다.

(2)호로문(葫蘆紋)

조사 대상 가옥 중 호리병형의 문양을 사용한 예는 보은 선병국 가옥이 있다. 도교에서 호로병은 제마(制魔), 신약(神藥) 또는 선약(仙藥)의 상징물로 되어져 있고 또한 호로박 속에는 많은 씨가 들어 있어서 자손이 많음을 상징하는 길상적인 사물의 하나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호로박은 다손과 부귀를 뜻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한국 전통주택을 대상으로 난간에 표현된 장식, 문양의 유형을 조사 분석하고, 이러한 문양들이 갖는 상징성을 파악하여 현대주거 공간의 외관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통주택의 난간은 대개 사랑채, 안채, 별채, 루나 정자 등에서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 가옥은 대개 사랑채와 안채의 두 곳 모두 또는 어느 한 곳에만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두 공간 중 사랑채에 난간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안채보다 사랑채의 난간모양이 더 화려한 장식적 구성을 하고 있다.

난간의 의장성은 궁창부와 두겹대 받침부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궁창부는 안상(眼象)을 새긴 판으로 끼워 넣은 것, 비워두거나 장식 없이 궁판 널을 끼워 넣은 것, 머름형, 교란형, 안상형 등으로 나타났다. 교란형은 지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머름형은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두겹대 받침부 의장은 받침 없는 것, 기등형, 호로병형, 하엽형 등이었다.

난간문양의 상징성을 궁창부와 두겹대 받침부에 표현된 장식문양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궁창부 안상(眼象)이 운기문(雲氣紋), 여의두문(如意頭紋)으로 표현되었는데 운기문은 다복(多福), 다수(多壽), 다손(多孫)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의두문은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겹대 받침부는 하엽이나 호리병형, 기등형의 문양을 조각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중 하엽은 난간의 크기나 계자각의 분위기에 맞추어 조각된 모양이 다양한데, 목조난간에 하엽문을 사용한 것은 연꽃이 물 속에서 자라 꽃을 피우는 식물이므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다. 호로병문은 제마(制魔), 신약(神藥)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손과 부귀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궁창부의 교란은 亞字, 卍字 등의 기하학적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亞字문은 부귀와 장수, 卍字문은 길상의 표시로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전통문양은 단순히 장식만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우리조상의 생활철학을 포함하여 미묘하고 복잡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전통문양은 상징성을 지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문화의 특성들은 우리문화의 독특함이자 정통성이다. 그리하여 전통 속에 내재된 표현의 방법과 정서의 원형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주거공간에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여야 하겠다. 즉, 오늘날 기능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과거의 난간이 지니고 있던 복합적

인 의미를 망각하고 무의미한 디자인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지양하고 옛사람들의 섬세함이 배어있는 난간의 문양을 살려 한국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야 하겠다.

주

- 1) 박영순외7인, 우리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 2) 주남철, 한국건축의 미, 일지사,
- 3)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97, p.158
- 4) 장기인, 한국건축대계V-목조, 보성각, 1993, p.357
- 5) 한국 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5,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pp182-184
- 6) 임영주, 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1986 p15-16
- 7) 한국전통건축, p217

참고문헌

1. 강영일(1994), KBS 미술자료집 전통가옥 70선, 서울 : KBS아트비전
2. 김도경(1997), 건축세계 -창간 2주년 특집호-「난간」, 월간건축세계
3. 김병렬, 한국문화 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5), 한국문화 상징사전, 서울:동아출판사
4. 문화재관리국(1985), 문화재 대관 (중요민속자료 上)
5. 문화재관리국(1985), 문화재 대관 제 3권, 보물1 목조건축
6. 박영순외7인(1998), 우리옛집이야기, 열화당
7. 신영훈(1984), 한국의 미④ 궁실 민가, 중앙일보
8. 신영훈(1988), 한국의 살림집, 민음사
9. 임영주(1998), 한국 전통문양, 서울 : 예원
10. 장기인(1991), 한국건축 대계 V - 목조 서울: 보성문화사
11. 주남철(1983), 한국건축의 미, 일지사
12. 지순, 윤복자(1992), 기초주거학, 신광출판사
13. 한국전통건축연구회(1997), 한국전통건축 제 5권 민가건축 上, 서울 : 황토
14. 한국전통건축연구회(1997), 한국전통건축 제 6권 민가건축 下, 서울 : 황토

(接受 : 1999. 10. 14)